



2021년 9월 26일(제1054호) **안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신앙의 행복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 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으니 아마 모국어인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언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반드시 외국어 1개 정도는 능숙하게 구사해야 하죠. 저도 요즘 공군 안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임하고 신자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당에 오기 몇 년 전 부대 안에 미군 자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미군 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 자매님이 매주 본당에 나오셨죠. 그런데 본당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미사 때 난감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울지 모르는 신자를 위해 틈나는 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 공부를 안 한 지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가 되기 전 신학생 때 영어를 공부하면 주변에서 의심을 하였기 때문이죠. 소위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였습니니다. 하기가 신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라틴어’, ‘희랍어’, ‘히브리어’ 등의 언어도 힘든데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사제가 된 뒤 사목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보좌신부 생활에 공부는 업무도 못 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 영어를 본 지 14년이 되었죠.

14년 만에 다시 영어를 보니 헛갈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기초적인 것을 하려다 보니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언어를 못한다는 ‘창피함’보다 언어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성취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복음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어 다가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сал 를 한 집이라도 주는 이는, 지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르 9,41)

오늘 복음의 배경은 ‘카파르나움’ 근처입니다. 카파르나움은 갈릴래아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입니다. 특히 ‘갈릴래아’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이 있는 아시리아가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이주 시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갈릴래아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차별과 소외의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낚선 사람들의 행위가 공동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도 대부분 갈릴래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 언어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공동체 전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언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언어에 가치 있는 것을 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아 모두를 살리는 대화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오늘이 9월 순교자 성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저와의 마지막 강론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선포하고,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합니다. 우리 민족도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아픔과 침략의 무서움을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아픔을 겪고 지금의 위치를 맞이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언어에 자신의 영혼을 담아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하느님의 그 언어를 말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 분에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지 말고, 가진 것을 늘려나가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열”, 곧 영혼이 담고 있는 송고한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늘리면 우리는 나중에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를 무겁게 하는 “영적 무게추”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сал 를 한 집이라도 주는 이는, 지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마르 9,41)



장다현(베드로) 신부
상요한(1진비) 상당 주임

제 1 독 시

민수 11,25-29

회 목 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 2 독 시

야고 5,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복 음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마르 9,38-43.45.47-48

영 성 제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 번째 시한

결국 약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밭에 앉아 있자니까, 처량한 생각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여 몹시 심난해졌습니다. 연락원들이 잡힌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여기로 오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원들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저 혼자서 여행을 계속하여 서울로 가자니 극히 위험할 뿐 아니라 여비도 없고 옷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으로 되돌아가자니 그것 역시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더구나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모셔올 길이 아주 끊어지거나 얇을까 하는 등등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와 근심에 억눌려 기진맥진하여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거름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된 채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저를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그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약속한 이곳에 왔었는데, 저를 만나지 못하자 뒤돌아갔다가 두 번째로 다시 여기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기다려도 제가 오지를 않으니까 모두 걱정들을 하면서 5리쯤이나 나가서 찾아보아도 저를 찾지 못하여 근심으로 밤을 새우고, 저의 도착에 대해 절망하고 낙심하여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까 하던 참에 저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7명의 신자들이 말 두 필을 끌고 서울을 떠났는데, 중간에 오다가 4명은 신부님들을 영접하는 어려움과 위험 때문에 낙심하여 뒤에 떨어지고 세 명의 신자만 변문까지 왔던 것입니다. 현 가를로(玄錫文)와 이 토마스(李在謹)와 두 명의 하인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뒤에 신자 두 사람은 처리할 일이 있어서 뒤따라오도록 남겨 두고 저는 한 명의 신자만 데리고 의주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30리를 겨우 걸은 다음 주막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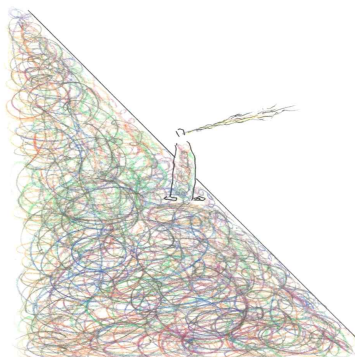
이튿날 말 두 필을 세내어 타고 길을 떠나 닷새 만에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내 약함



교만, 의심, 분노,
보복, 탐욕, 쾌락...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아니, 분명,
이것들 외에 또
무엇인가 있을 거야.

분명.

성화이야기

오, 히느님! 승리입니다!



오늘 성화는 출애굽기 17장 12절, 이스라엘과 아말렉군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군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우세해지는 것에 대한 성화이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자,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후르가 모세의 팔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 그림은 석양처럼 보이는 붉은 하늘을 뒷배경으로 한 모세와 기도 안에서 주의 깊게 전투를 바라보고 있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정신만은 형형한, 세 인물의 진지한 표정이 잘 그려져 있다.

존 에버렛 밀레
1870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94.7 × 141.3cm
맨체스터시 미술관, 영국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은하수 박성빈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 9월 28일(화) 16:00

◆ 제54회 군인 주일

때: 10월 2일(토) ~ 3일(주일)

◆ '신부(神父)의 책장' 이벤트 안내

- '신부(神父)의 책장' 특별편 '신자(信者)의 책장'
- 신부의 책장 구독자들이 직접 읽은 책을 구독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